

비어 있는 주체를 드러내는 객체의 속성: 맥베스의 욕망 분석

염수근*

『맥베스』(*Macbeth*)에서의 맥베스는 자신이 가진 생각이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라 마녀의 예언에 귀속된 생각임을 처음에는 인지하다가 후에는 마녀의 예언이 자기 생각과 일치됨을 인정하고 오히려 전적으로 그것에 의존하여 생각할 수밖에 없는 주체가 되었다. 맥베스가 가진 생각이 그 자신의 소유물인지 아니면 타자에 의해 심어진 것인지 구분이 모호해지다가 마녀라는 타자의 예언에 따라 움직이는 객체적 존재가 되어버린다. 마지막에 가서 그가 한 행동들은 그가 행한 행동들의 이어진 연결된 반응일 뿐이고 그 일련의 행동들의 연속은 죽음 말고는 답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끝을 맺는다. 여기서 맥베스는 자신의 ‘나’는 어디 간 곳이 없고 소위 야망 또는 욕망에 이끌려 자신의 행동들을 흘려 보내버린다. 이러한 맥베스의 존재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그의 몸이 행한 행동들을 한 개체로 묶어 설명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맥베스는 ‘자신’이라는 속성에서 행동의 원인이 도출되지 않고 외부의 자극, 즉 타자의 욕망 등에 의해 반응적으로 행동한다. 그러나 맥베스가 아무런 갈등도 없이 곧바로 마녀의 예언을 체화시켜 권력을 향한 욕망을 ‘자신’과 일치시키지 않았다. 그 역시 내면의 생각과 상반되도록 겉으로 나타나는 표정을 통제하였고, 내면과 일치하지 않는 타자의 욕망 때문에 망상에 사로잡히고 정신착란증을 경험한다. 이것은 분명 ‘맥베스’라는 존재 속에 ‘나’라는 실체가 있다는 증거이며 그의 ‘나’와 ‘욕망’의 괴리가 그를 비극으로 이끌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맥베스의 욕망이 주체적인 분출의 결과인지 아니면 자신의 범위를 넘어서 그를 이끌어가는 무언가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녀의 예언은 맥베스가 스코틀랜드의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그는 평정심은 잃어버리고 왕이 되고자 하는 집착에 사로잡혀 온갖 잔혹한 일을 감행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 과연 마녀의 예언이 맥베스의 마음속에 욕망이라는 씨앗을 심어준 것일까? 다음 맥베스가 그의 부인에게 보낸 편지글을 보고 이 논제를 더 살펴보자.

전쟁에서 승리한 날 그들은 나를 만났소. 그리고 나는 확실한 예언으로 깨닫게 되었지. 그들은 인간의 지식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소. 내가 그들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싶은 욕망이 불타올랐지만, 그들은 공기가 되어 그 속으로 사라졌소. 내가 그 신비로움에 몰두해 서 있을 동안, 왕으로부터 서신이 도착했소. 나를 환영하는 편지였지. "코오더 영주여." 앞서, 이 명칭에 위어드 자매들이 나를 반겨주었지. 나를 나를 그 시간에 맞추어, "만세, 왕이 되실 이여!"라 지칭하였소. 나의 소중한 위대한 동반자인 당신에게 이 말을 전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오. 혹 행여나 그대에게 예정된 위대함을 무시하여, 기쁨의 순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하오. 그대에 마음 속에 이 말을 두시오. 안녕. (1.5.1-14)

위 편지글의 내용을 보면, 맥베스는 마녀들이 한 예언에서 “인간들의 지식을 넘어선”(more in them than mortal knowledge) 무언가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것에 대해 더

* 창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박사과정

많은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마녀들은 공기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맥베스는 “더 질문하고 싶은 욕망”(desire to question them further)이 불붙듯 일어나면서 이후 욕망에 사로잡혀 버린다. 여기서 그가 마녀들의 예언을 “인간들의 지식을 넘어서” 것이라 말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본인으로 만족감과 성취감을 만끽할 수 있는 시점에 그것을 넘어서 환상을 보았다. 그가 본 환상은 현재 그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보여주었고,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손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음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즉, 맥베스 속에서 불붙듯 일어난 욕망의 특징은 그 대상이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한 부족한(lack) 것이고 동시에, 교묘하게도, 공기처럼 그리고 물거품처럼 손에 쥘 수 없는 환상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이 부족한 상태는 공기와 물거품처럼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욕망의 상태는 일시적이 아니라 살아있는 한 끝까지 지속된다.

마녀들의 예언은 왕이 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어 맥베스 ‘자신’이 부족한 상태임을 발견하도록 하였다. 인간이 신과 같지 않음을 발견하도록 하여 신과 같이 되겠다는 이를 수 없는 이상(ideal)을 추구하도록 만든 뱀의 유혹처럼 맥베스는 그 인생에 수차례 환상으로 환영되어 제시된 ‘왕’이라는 이상을 추구한다. 비록 실제 같지만 물거품과 같이 허상인 욕망의 대상을 제시하여 아무리 그것을 소유하여도 본질적으로 물거품과 같은 허상으로 채우는 것이기에 그는 만족할 수 없는 욕망적 성향을 가진다. 따라서, ‘맥베스’라는 주체는 ‘마녀들의 예언’이라는 실체가 없는 상징적인(symbolic) 것, 즉, ‘신호’(sign) 또는 ‘기표’(signifier)와 같이 실질 내용물(substance)이 아니라 상호관계(interrelation)로 의미를 부여받는 상징을 추구하며 욕망하는 주체로 살아간다.

플라톤(Plato)의 이데아(Idea)의 개념을 짚어보면 욕망의 대상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그에 따르면, 현재 눈에 보이는 사물은 이데아에 있는 원형(prototype)의 그림자일 뿐, 현 세계에는 완벽한 존재가 없다. 이처럼, 우리가 소유한 사물들은 완전한 것이 아니기에 소유를 통해 우리는 만족을 이룰 수가 없다. 맥베스는 던컨을 살해하여 왕으로 추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인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그 시점에서 쥐고 있던 ‘왕’의 권력이 그의 이상처럼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바라는 대로 왕이 되었지만, ‘더’ 안정되고 확고한 왕위를 얻지 못함으로 인해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상에 있는 왕위를 얻으려고 연속된 살인을 감행하지만 그 이상은 끝내 도달할 수 없는 대상이었다.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이 소진되었구나
 우리의 욕망은 만족 없이 채워진다.
 우리가 파괴는 편이 더 안전하구나
 파괴하면서 의심스러운 즐거움에 거주하기 보다는. (3.2.4-7)

파괴하면서 얻은 ‘의심스러운 즐거움’(doubtful joy)으로 살아가기보다 오히려 파괴된 존재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한 맥베스 부인의 말은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결말을 보여주는 한마디가 될 것이다. 맥베스 부인이 욕망의 대상을 차지하면서 결국 발견한 ‘자신’(self)의 모습은 ‘없음’(nought)이다. 맥베스도 그의 부인과 다르지 않음을 5막에 이르러 확실해진다.

인생은 걸어가는 그림자일 뿐. 처량한 배우가,
 공연시간 동안 무대에서 뽐내며 걸거나 초조해하는 것과 같다.

그 후에는 더 이상 들려지지 않지. 인생은
백치들이 전하는 이야기이며, 소리와 분노로 가득찬,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이야기이지. (5.5.24-28)

맥베스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다시 말하면 주체가 되어 ‘인생’(life)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살아왔지만, 그는 한낱 ‘그림자’(shadow)와 같은 배우일 뿐이다. 그래서 위 대사는 맥베스가 ‘연출자의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비주체적 존재인 ‘배우’(player)처럼 자신도 초월적 존재(transcending being) 즉, 또 다른 인생의 주권자(sovereignty)가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여왔던 존재였음을 인정하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발견한 자신의 모습은 ‘없음’(nothing)이다. 자신이 주체가 되어 써 내려갔던 서사적 이야기(narrative)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못하는 소리, 즉 상징체계의 한 부분일 뿐임을 깨닫는다.

맥베스의 행적을 추적하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그가 가졌던 욕망하는 순간을 되짚어보면, 그는 ‘비어있었던’(empty) 주체임을 알 수 있다. 1막에서 맥베스는 실체가 모호한 마녀들의 예언대로 그의 인생이 조종되었고 2막에서 단검의 환영에 따라 그가 칼을 쥐고 던킨 왕과 그 부하들을 살해해버리는 일을 저지르는 모습은 맥베스 자신 속에 아무것도 없었음이 강조된 대목이다. 이 비어있는 주체의 증상적 특성은 ‘자신’을 구성할 대상물(object)을 끊임없이 욕망하며 그 욕망의 대상으로 자신을 채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욕망의 대상은 결국 비어있는 ‘자신’을 드러낸다.

주체가 가지고 있던 확고한 정체성, 즉 주체가 자신의 영역이라고 설정한 경계선을 위협하는 것들은 그에게 ‘혐오’로 다가온다. ‘혐오’가 일반적으로는 더럽고 불경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주체의 정체성을 불분명하고 흐릿하게 만드는 것이 혐오이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혐오의 대상으로 시체(carass)가 있다. 시체는 삶과 죽음의 경계 선상에 있는 것으로 살아있는 자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끝없이 내던져 버려야 하는 것”(Kristeva, *Horror* 3)이다. 이 폐기물을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살아있음과 죽음을 계속 확인한다.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에 있는 죽은 몸을 대할 때마다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경계선을 침식시켜버리는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시체로 인해 경험하는 이 혼돈의 과정은 출생, 제사 등의 의식행사의 각 부분에 산재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예술, 사랑 등등의 창의적이고 발산적 활동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첫 번째 마녀들과의 만남에서 마녀의 정체성이 실재(reality)와 환영(illusion) 사이의 모호함으로 맥베스라는 주체를 혼돈의 빠지게 했다면, 두 번째 만남에서는 더 직접적인 혐오로 맥베스의 정체성을 무너뜨린다.

저 달 한구석에
맺혀있는 심오한 증기 방울이 있단다.
나는 그것이 땅에 떨어지기 전 모을 것이야.
그리고 마술 솜씨로 증발시켜
인공의 정령들을 불러 일으킬거야.
그 환상의 힘으로
그를 혼돈 속으로 끌어당기는 거지.
그는 지혜와 은총과 두려움을 넘어서
운명을 앞잡아보고, 죽음을 경멸하며, 희망을 품게 해야지.
너희들도 알다시피, 확신은

인간들의 가장 주요한 적이지. (3.5.23-33)

위 대사는 지옥의 여신 헤카테(Hecate)가 그녀의 수하인 마녀들에게 내린 명령에 가까운 내용이다. 맥베스를 혼돈에 빠지도록 마녀들이 미리 마법의 약을 만들 것을 말해놓고, 그 약으로 맥베스를 운명을 앞잡아보고, 죽음을 경멸하며, (헛된) 희망을 품도록 하여 파멸로 이어지도록 방심하게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그녀가 지키고 있는 지옥의 문으로 맥베스를 이끌기 위해 그녀가 사용한 방법은 환영(sprite, apparition)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이었으며, 이 환영들을 만들기 위해 주술이 섞인 약을 만든다. 세 명의 마녀 각자가 주술적 곡조에 맞춰 재료를 언급하며 각기 다른 재료들을 넣고 있지만 모두 혐오적 대상물들로 가득 채운다. 그 중 두 번째 마녀의 재료들을 보면,

작은 땅에 사는 뱀의 한 부분
가마솥에 끓이고 구워서
도롱뇽의 눈알과 개구리 발가락
박쥐의 울음소리, 개 헛바닥
살모사의 갈라진 혀, 눈먼 지렁이의 독침
도마뱀 다리, 올빼미 날개
강력한 고난의 주문을 위해
지옥의 국물처럼 끓고 거품이 이네. (4.1.13-19)

위의 재료들은 하나같이 『성경』의 「레위기」에서 먹기를 금하고 있는 동물들이다. 음식규범에 어긋난 재료이기에 혐오적 대상으로 명명할 수도 있겠지만, 음식물로 금한 동식물들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혐오적 대상의 특징을 알 수 있다. 「레위기」에 언급된 부정한 동물들은 그와 유사한 동물의 고유성을 흐리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물고기이지만 비늘이 없던가, 새임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기어 다니는 종류이던가, 또는 포유류이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굵이 갈라지지 않은 것들은 부정한 것으로 분류된다. 포유류인 경우 갈라진 굵과 되새김질이 포유류 고유의 특징으로 현대사회에서 명명하기 어렵겠지만, 「레위기」 당시 사람들이 키우던 가축의 전형적인 모습이 소에 가깝다는 의미론적 접근을 이용한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위 마녀의 주술에 언급된 동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파충류 또는 양서류이다. 이들은 물속에 사는 어류도 아니고 땅에서 사는 조류나 포유류도 아닌 경계 선상의 종류로 『성경』으로 말하자면 부정한 것이고,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공포의 힘』에 따르면 혐오적인 것이 된다. 특히, 박쥐와 같은 것은 조류도 포유류도 아닌 경계선에 있는 대표적인 혐오의 대상이 된다.

마녀들이 만든 약은 마녀들이 맥베스에게 보여줄 환영의 속성적 측면을 잘 드러내어준다. 그 환영은 주체가 설정한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이어서 객체와의 혼돈을 일으키는 혐오적 대상이다. 그리고 세 마녀 모두가 외치는 주술인 “배가 되어라, 고통과 고난아 배가 되어라. / 불길로 불태워; 그리고 가마솥아, 끓어라”(Double, double toil and trouble / Fire, burn; and, cauldron, bubble)에서 ‘배가 되는 것’(double)과 ‘끓는 것’(bubble)은 주체의 혼돈 상태를 보여주는 직설적인 문구이다. 하나의 고유한(proper)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거품과 같이 사라져버리는 주체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더하는 장면이다. 결국 주체는 비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불안과 공포에 직면하고 눈앞의 ‘타자’에 밀착하여 그 정체를 재정립한다. 맥베스가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환영이 제시한 예언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그것

과 자신을 일치시킨 장면은 그가 일시적으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게 된 이유가 된다. 그는 마녀들을 비롯하여 환영을 만난 이후는 확고한 자아의 정체성을 가진다. 4막부터의 맥베스는 이전과 다르게 불안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 과정은 아이가 어머니를 혐오로 밀어버리고 상징계(symbolic)의 대타자를 ‘자신’으로 대체하여 주체를 형성한 것과 같다. 그렇다고 대타자를 ‘자신’으로 대체했다고 해서 이 확고한 주체성이 위협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혐오성의 경험으로 주체는 변화할 수 있다. 자신을 채울 수 없다는 공포감에서 맥베스는 환영이 제시한 확고한 믿음을 자신의 존재를 위한 근거로 삼았다.

더 이상의 보고는 전하지 마라. 그것들은 모두 저 멀리 날아가게 하라.
 버어남의 숲이 던시네인으로 옮겨질 때까지,
 나는 공포로 물들지 않으리라. 꼬마 뿔컴이 무엇이나?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아니었던가? 정령들이 알기를
 모든 인간의 결과는 나에게 이렇게 전해졌다.
 '두려워 말라, 맥베스여. 여자에게서 태어난 어떠한 남자도
 그대보다 더 강하지 않으리라.' (5.3.1-7)

버어남의 숲이 던시네인으로 옮겨질 리가 없고, 남자들 중 여자에 의해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없기에 확고하고 절대적인 논리에 귀속하여 자신을 존재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처해있는 상황을 보면 4막 이전보다 훨씬 더 불안감에 떨고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스코트랜드 왕으로 등극했지만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인물들이 몇몇 있었던 것이 4막 이전이라면, 영국군의 힘을 얻어 던시네인으로 쳐들어오는 뿔컴과 맥더프의 존재는 훨씬 더 큰 불안의 요소이고 동시에 맥베스 자신의 군대도 그의 통솔에서 이탈자가 속출하고 있는 점은 그가 훨씬 더 큰 공포에 질려있어야 할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베스는 환영들이 던져준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불안해하지 않는다.

하지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두 가지 명제였지만, 맥베스는 다시 ‘혐오’에 노출된다. 버어남 숲의 나뭇가지가 밀려들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숲의 경계가 흐트러지는 혐오적 경험을 마주하자, 맥베스는 확고한 상징계적 주체를 더 이상 지속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를 유일하게 죽일 수 있는 ‘여자가 낳은 남자가 아닌 자’가 나타난다. 맥더프는 해를 채우지 못하고 어머니의 배를 가르고 나온 자라고 지칭하며 ‘태어남’의 개념을 뒤집어버렸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맥베스가 표출했던 욕망의 근원은 공포와 불안감이었다. 그가 가졌던 야망은 그가 가졌던 불안감에 대한 증상적 차원의 것이었다. 더 확고한 자신의 위치를 쟁취하기 위해 욕망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그’의 실체를 ‘비어 있음’을 발견하고 불안해하며 그 불안감을 ‘무엇’으로 대체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매순간마다 ‘혐오’를 직면하면서 그가 설정해놓은 경계선과 그의 정체성은 무너져 내리며 불안감을 이어갔다. 뿐만 아니라 확고하고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상징계적 언어논리에 자신을 귀착시켜 그 주체성을 이어갔지만 그 논리마저 혐오성으로 인해 틈이 생겨 무너져버린다. 맥베스가 시작부터 악의 인물에서 출발하지 않고 평범한 성정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불안해하고 욕망하며 살아간 모습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인생길 또한 이와 유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맥베스』를 마주하며 우리가 가진 욕망의 근원을 살펴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마주하면서 생긴 그 불안감으로 인해 우리가 욕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